

“한중일 3국 불교사 같이쓰자”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 한중일대회서 제안

중국 강소성 무석서 열린 제13차 한중일대회에서 10월 18~19일 중국 강소성 무석서 열린 제13차 한중일대회에서 한중일 공동불교사를 간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10월 19일 중국 무석 범공에서 열린 한중일 대회 학술강연회에서 주제발표 ‘한류(韓流) 중류(中流) 일류(日流) 그리고 불류(佛流)’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스님은 “현재의 한중일 상생 시대는 3국을 동시에 광장화(廣場化)하는 문화시장으로 단일화되어 넓혀지고 있다. 한류와 중류, 일류가 서로 이웃지역을 마음껏 만나들면서 공류(公流)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철 스님은 “동아시아가 평화적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간에 동류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지

리학적 동일체라는 의식 위에 불교를 통한 문화적인 동류의식이 함께 부여된다면 동아시아 삼국인들은 결코 서로가 서로를 남남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불교는 현대의 과학적 사고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이며 동아시아를 통합시킬 수 있는 두터운 문화적 토양이며, 따라서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들은 동아시아 미래에 불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원철 스님은 “불교사의 공유적 시각을 통해 한중일의 황금유대는 한중일 불교도의 전체적인 교류로 넓혀야 한다. 3개국 청소년이 교류하고, 청년과 대학생이 교류하고, 재가의 불교활동가들이 교류하고 마침내 모든 사부대중들이 교류하면서 미래 동아시아의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통일의 기틀을 닦도록 하

자”며 한중일 공동불교사 간행을 제안했다.

스님은 2005년 한중일 시민단체와 역사학자가 펴낸 중학교용 공동역사교과서인 <미래를 여는 역사>를 예로 들었다. 중학교용에 이어 2011년에는 고졸 이상 성인 대상의 역사교과 출간을 앞두고 있다. 또, 책은 한중일 각각의 언어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동시 출간을 준비중이다.

원철 스님은 “자국의 입장에서 한국불교사 중국불교사 일본불교사를 기본 토대로 삼으면서도 그 관계를 연결적 관점에서 바라본 동아시아 불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그 이유를 “불교역사를 알면 동아시아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다”라며 “공동작업을 전제로한 한중일 공동불교사 간행은 한중일 황금유대의 미래를 제시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한·중·일 불교 황금유대 강화 확인

중국 강소성 무석서 제13차 한중일대회

10월 18~19일 중국 강소성 무석서 열린 제13차 한중일대회에서 3국의 불교지도자들은 ‘3국 불교의 황금유대 강화’를 확인했다.

3국 불교 지도자들은 18일 채택한 공동선언에서 “한중일 3국 문화교류사에서 불교적인 협력과 교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로 3국 불교도를 아주 견고하고 소중하게 연결시켜주는 ‘황금유대’라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자비, 평등, 화합, 공생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한중일 3국 불교계의 깊이 있는 교류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세간의 인식을 정화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고, 세계평화를 지켜나가고, 지구환경을 보존하면서 3국의 우의가 후세에 전래되도록 하자”고 다짐했다.

19일 무석 영산 범공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1000여 사부대중

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은 치사를 통해 “본 대회를 통해 3국의 불교계가 더욱 발전하고 사회평화와 협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중국불교협회장 주아인(傅印) 스님도 “불교의 자타조화, 자비제세의 정신을 발휘하여 끊임없이 3국 인민의 전통 우의를 증진시키는 기초위에서 세계불교사업의 전체적 발전과 인류의 모순을 없애고 분쟁을 제거하며 심령을 정화하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힘을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중한 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고바라시준쇼(小林隆彰) 스님은 “3국불교의 황금유대야말로 세계평화의 기본이며 영원 불멸의 도표”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떡이야? 꽃이야?” 수원 봉녕사(주지 묘엄)는 10월 16~17일 ‘봉녕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개최했다. 사찰음식의 대중화와 전통문화콘텐츠로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사찰음식 경연대회를 비롯해 사찰김치 전시와 큰스님 밥상 재연, 스님들의 탁발순례, 강의, 다도, 바자회 장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사진은 경연대회에 출품된 사찰음식을 어린이 관람객이 신기한 듯 보고 있는 모습. 관련 기사 9면 사진=박재완 기자

G20 정상회의 성공기원 대법회

108산사 순례기도회 창립 4주년 기념 영산재

‘선뉘 해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 가는 108산사 순례 기도회’가 10월 24일 장충체육관에서 G20 서울 회의의 성공기원을 발원하는 영산재를 봉행했다.

기도회 창립 4주년을 기념해 봉행된 이날 행사에 참가한 5000여 사부대중은 세계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세계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이 이뤄지기를 기원했다.

해자 스님은 “불교계는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를 두루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해 지구촌이 하나 되는데 불자들이 앞장서자”고 말했다.

한편,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2006년 9월 조직됐다. 기도회는 108산사를 찾아 108불공을 올리며 108선행을 통해 108공덕 짓고 108배하며 108번뇌를 소멸하고 108염주를 만들어 가는 인연공덕을 쌓아가는 데 목적을 둔 사찰 문화 네트워크이다. 연인원 25만여 명 참가, 1500여 가마의 팔공양, 순례 해당 사찰은 장건 이래 가장 많은 불자 운집이라는 진기록을 세우며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새바람을 일으켜 왔다. 조동섭 기자

“마애불 천공은 30분 이상 고의 작업된 것”

불교환경연대 지도위원 범응 스님…재조사 촉구

조계종 문화부가 낙동강 유역 4대강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마애불의 천공을 지질조사용이며 고의 훼손의도는 없었다고 발표한 가운데, 마애불의 천공이 마애불 훼손(발견은 폐)을 목적으로 고의로 작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교환경연대 지도위원 범응 스님은 10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마애불의 천공은 최소한 두상 부위의 압편과 음각이 인지된 상태에서 천공작업이 시작됐다. 마애불의 천공은 불상 훼손을 목적으로 고의로 작업했다는 짐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범응 스님은 “1.2m 깊이를 천공하려면 30여 분은 작업해야 하는데 작

업한 기사가 마애불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범응 스님은 △정부와 해당 사업장 건설회사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종단 및 정부 합동의 정밀조사 재실시 △마애불 주변 일대의 매장문화재조사 실시 △4대강 사업장마다 문화재와 관련한 감시의 눈을 떼지 않는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교과목 ↓ 신행활동 ↑ 교육시간 ↓

조계종 불교대학 교재 및 교과과정 전면 개편

조계종은 지난 9월 중앙총회에서 통과된 신도법 및 신도관계법 에 따라 2012년부터 불교대학 교과목을 필수 5과목, 선택 7과목에서 필수 4과목으로 축소하고 수행, 봉사, 성지순례 등의 신행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모든 불교대학의 학제를 1년 2학기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교육이수 시간도 현재 128시간에서 96시간으로 줄어든다. 특히 교육이수 시간에서 봉사활동 등 신행, 수행에 32시간을 포함해 신심있는 신도 양성에 주력

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0월 19일 신도전문교육기관 학장간담회를 열고 신도법 및 신도관계법에 따른 신도교육기관의 확대와 교재 및 교과과정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의 시간을 마련했다.

포교원은 이날 2009년부터 3차례의 신도정책위원회와 불교대학 학장회의 및 워크숍을 통해 모아진 불교대학의 문제점과 개선책,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상언 기자

14 15 선지식을 찾아서 우리는 법정 스님을 보였을까?

본다는 건 온몸으로 만나는 일이다. 지난 3일 열반에 드신 법정 스님은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 그대로 모든 장례절차를 마다하고 입원 웃 그대로...

3 10 · 27법년 30주년
 역사교육관 추진... 진실 규명 미흡

7 포교 100년 진단
 종교교육 없으면 포교도 없다

16 강의실
 신비 가득한 사리신앙과 사리장엄구

18 윤남진 리뷰
 G2 사이에 낀 동아시아 종교의 미래

‘나이 40이 되어도 이렇다 할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 『논어』 자한편(子罕篇)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100년 동안 세상에 출판된 불교서적은 무슨 책들이 있을까?

시공을 초월하여 독자의 마음에 길이 남아 있는 책은 드물 것이다.

이 책에 선정된 책은 불멸의 명저도 있고, 베스트 셀러, 논쟁이 되었던 책, 화제의 책, 뛰어난 번역서, 출판역사상 특필해야할 책 등 소중한 자료들로 구성 되었다.

윤창화 저
 신국판 / 양장제본 / 404쪽 / 값 18,000원

圓覺經

완전한 깨달음



이제껏 강의 신국판 / 318쪽 / 값 12,000원

금생에 해야 될 가장 큰일이 있다면 마음을 깨닫는 일이다. 중생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비롯한 열두 보살과 부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중생들이 허깨비 같은 무명(無明)을 끊고 불성을 드러내어 진실하고 뚜렷한 완전한 깨달음에 들 수 있을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